

고척교회 예배 안내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안으로는 사랑을 나누고 밖으로는 선교를 실천하는 좋은 교회”

예배 안내

주일예배	1부	오전 7:00	은혜대예배당
	2부	오전 9:00	
	3부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오후 3:00	은혜대예배당
수요기도회	1부	오전 10:00	은혜대예배당
	2부	오후 7:30	은혜대예배당
새벽기도회	1부	오전 5:00	은혜대예배당 (하절기)
	2부	오전 6:00	꿈터 채플 (동절기)
금요성령집회		오후 8:30	은혜대예배당
L-12 리더모임	수요일	오전 11:30	교구별 장소
		오후 8:30	은혜대예배당
M-12 리더모임	수요일	오후 8:30	5층 세미나실

교회학교 안내

새싹부	주일 오전 9:00	비전센터 1층
영아부	주일 오전 11:00	비전센터 1층
유아부	주일 오전 11:00	꿈의교육관 1층
유치부	주일 오전 11:00	꿈의교육관 5층
유년1·2부 (초 1~3학년)	주일 오전 9:00/11:00	꿈의교육관 지하
소년1·2부 (초 4~6학년)	주일 오전 9:00/11:00	꿈의교육관 4층
중등부	주일 오전 11:00	꿈터 채플
고등부	주일 오전 10:30	문화공간 채움
청년부	주일 오후 1:00	은혜대예배당
은빛시니어학교	목요일 오전 10:30	꿈터 채플

* 모든 예배는 '고척교회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송출합니다.

◆ 상담실: 매주 (화) 오전 10시~오후 5시 Tel. 080-686-5871

우물가

2024 / Winter



CONTENTS

2024 Winter

고척교회보 우물가 Vol 241

우물가

002 **담임목사 칼럼**

“오직 사랑 안에서”

004 **기획특집 1**

나의 목회여정

지나온 목회여정속의 나는 행복했던 고척교회 목사였습니다
“에벤에셀 하나님”
‘주는 사랑’과 ‘받는 사랑’의 상관관계
손수건 같은 만남의 날들을 그리며...
그래서 저는 행복한 목사입니다!
필레꽃처럼 모든 이에게 기쁨을 주는 교회

016 **우물가 twitter**

일상과 삶의 이야기

척박했던 땅에 70년 전...
고척리 작은동네에서 한결같은 주님의 은혜와
베풀고 배려하고 사랑하며
신앙을 세워가는 든든한 교회
God Is God
숨을 쉬며 살아가는 지금
창립 70주년을 축하하며
가슴으로 쓰는 편지

024 **기획특집 2**

70주년 우리교회 좋아요!

70주년, 70인 성도가 말하는 "우리교회 좋아요"

034 **특별기고**

70주년, 70인 성도가 말하는 "우리교회 좋아요"

인생에 들어가는 마지막 날 새벽에 만화 원고를 넘겨주면

040 **우리교회는**

각 부서 이야기

058 **사진으로보는 70주년**

060 **그라티아전시회**

작가 : 엽창이, 작가 : 이세영



“오직 사랑 안에서”

교회 창립 70주년을 맞이한 우리 고척교회는 참 좋은 교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참 사랑하시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교회입니다. 그러니 사랑을 받은 만큼 사랑을 주어야 하는 교회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하고 매 주일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함께 하는 인사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올해 70주년이 지나고 100주년이 될 때까지 30년 동안 매주일 이 인사를 나눈다면 1,560번은 사랑의 인사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말로만 하는 인사일지는 몰라도 1,560번이나 반복해서 인사한다면 어느 순간 사랑으로 인사하는 말이 우리 뱃속 깊이 침투해 있을 것이라 기대해 봅니다. 그렇게 사랑의 인사를 나눌 때마다 우리 교회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기도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해서 행복으로 가득한 교회되기를 꿈꿉니다.



차동혁 담임목사

오늘날 많은 교회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닮아가는 것 같습니다. 강단의 설교가 인기를 얻기 위한 수단이 되고, 헌금이 직분을 얻으려는 방편으로 전략하고, 목적을 위해 사랑을 수단으로 이용하는 세상의 방식이 교회 운영 방식이 되곤 합니다. 교회마저 이렇다면 세상에 믿을 사람, 믿을 공동체가 어디 있을까요?

이런 세상 한복판에 사는 우리 교회는 어떠해야 할까요? 우리 교회만큼은 세상을 닮지 말고 거꾸로 가야 합니다. 사랑만 하는 교회여야 합니다. 목사인 저도 교회와 성도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면 참된 것만 하게 될 것입니다. 행동과 말에 거짓이나 과장 없이 참된 것만 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들도 교회 공동체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면 참된 것만 하게 될 것입니다. 가슴 속 진실만 말하는 데도 서로에게 상처가 되지 않고 행복이 되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공동체가 자라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겁니다. 어떤 이들은 다른 이들보다 좀 더 느리게 자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에서 자라기를 서로 격려하며 사랑만 하고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이렇게 훌쩍 자랐나 싶을 때가 올 것입니다. 고척의 100년을 꿈꿀 때마다 고척의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 있는 모습을 꿈꾸며 기대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나온 목회여정속의 나는 행복했던 고척교회 목사였습니다

교회 창립 '70주년을 맞이하여 지금도 현장 목회를 활발히 하고 계시는 다섯 분의 역대 목사(전도사)님을 지면으로 만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954년 창립 이래 우리교회는 41명의 부목사, 79명의 전도사 그리고 교육전도사 71명과 초대 유상봉 목사님을 비롯한 아홉 분의 목사님(교육, 협동 포함) 등 모두 200명의 교역자가 각자의 목회여정속에 고척교회를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너 같이 여호와와 구원을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네 영광의 칼 이시로다” (신명기34:29)



과거는 미래를 보는 터널이라고 합니다. 목사는 새벽기도회가 가장 힘들다는 어느 부흥 강사님의 말씀을 차치하더라도 목회를 감당 하시면서 힘들지 않았던 시간은 없었을 것입니다. 고척교회에서 아무리 잘하고 평탄했었을 사역이었을지라도 우리 교회를 거쳐간 수많은 목회자들을 서운하게 하고 힘들게 했던 환경이나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도 그러한 여건과 사람들이 있었기에 섬기고 기도하고 길러야만 했던 목양의 대상들이 있어 오늘 내가 있었다고 더 큰 감사로 생각하며 이를 잘 극복하고 이곳저곳에서 담임목사, 부목사로 또 선교사로 섬기고 기도하고 있는 다섯 분의 목사님을 만나보면서, 지나가는 목회여정속 고척교회를 투영해봅니다. (글. 이재만 편집장)



“에벤에셀 하나님”

김성혜 목사(치유하는교회 부목사)
2006년 10월 부임 ~ 2013년 12월 사임



할렐루야! 고척교회 창립 70주년을 맞이하게 하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그동안 고척교회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아래, 거침없이 달려왔습니다. 그 과정 중에는 환한 미소를 지을 수 있는 기쁨과 감사의 시간이 있었고, 가슴 시리게 눈물을 머금게 하는 슬픔과 애통, 인내와 고난의 시간 들이 있었으며, 앞을 향해 힘차게 도약하는 도전, 희망, 벅찬 감동의 순간,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가 함께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교회창립 70주년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하나님과 고척교회 담임목사님, 당회원, 교우들에게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고척교회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7년간 동참했던 김성혜 목사입니다. 유년부 교육전도사로 부임한 후, 아기 학교와 유아부, 여러 부서를 은혜 가운데 경험

하며 행복한 사역을 담당했습니다. 철부지였던 교육전도사 시절, 좌충우돌 사역의 현장 속에서 우리 선생님들의 뜨거운 사랑을 잊을 수 없습니다.

한없이 부족했을 터인데, 모든 것을 순종하며 묵묵히 따라 주셨습니다. 여름성경학교를 준비할 때이면 밤낮 가리지 않고 모두 나오셔서 열심히 임하셨습니다. 그 열기가 얼마나 격렬했는지 아이들이 뜨겁게 울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의 장이 열렸습니다. 또한 작은 것 하나까지 서로 나눠 먹으며, 부족한 것들은 채워주시고, 아껴주시면서 목회자를 사랑으로 섬겨주셨습니다.

또한, 교회를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지 솔선수범하며 그 자리를 지키셨습니다. 고척교회의 교사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이 감사하다는 선생님들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저는 고척교회를 통해 영혼을 향한 사랑과 눈물의 기도, 교회를 위해 아낌없이 헌신하는 마음과 열정, 그리고 서로를 아껴주고 섬겨주는 사랑의 마음을 배웠습니다. 고척교회에서의 사역의 시간이 지금의 저를 이 자리까지 오게 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저는 현재 화곡동 치유하는 교회 부목사로 시무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서에서 오랜 시간 섬기다가 이제는 교구와 새가족부, 알파 코스 사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기도한 바대로 사역의 지경을 넓혀주셨고, 그동안 한 아름 받았던 사랑을 마음껏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부족한 종을 통하여 하나님 일하시고, 한 영혼 한 영혼 회복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목회 현장이 참으로 행복합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떠한 길로 인도하실지 가능할 수 없으나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사랑을 전하는 목사의 길을 순종하며 걸어가겠습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에벤에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사랑’과 ‘받는 사랑’의 상관관계

배덕환 목사(용인영락교회 담임목사)
2010년 1월 부임 ~ 2015년 11월 사임



서울서남권 영혼들의 방주역할을 해온 고척교회의 70주년 생일을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사역하며 많은 것들을 배우고 친정교회처럼 여기는 고척교회가 70년을 한결같이 성장하며 여전히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끊임없이 좋은 소식을 알려줌에 자부심을 느끼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척교회는 저에게 ‘주는 사랑’과 ‘받는 사랑’의 상관관계에 대한 상식을 바꿔주었습니다. 우리는 주는 만큼 돌려받는다는 ‘작용-반작용의 법칙’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나 고척교회에서 제가 성도님들에게 받은 사랑은 준 사랑에 비하면 과분할 정도로 넘쳤습니다. 사임 인사할 때 눈물이 났던 것도 그 사랑의 기억들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도 그때의 경험을 토대로 제가 용인영락교회를 떠날 때 성도들 앞에서 눈물을 흘릴 수 있고 성도들은 이것을 아쉬워하는 목회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고척교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고척교회에서의 사역의 경험은 저의



사역의 지경을 넓혀주었습니다. 그 전에 제가 경험했던 사역들은 지극히 교회 중심적인 사역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고척교회에서 희망의 복지재단을 섬기고, 천사운동을 진행하고, 소그룹 등 다양한 사역을 섬기는 과정을 통해 보다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고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천사운동입니다. 첫째 800여만원 정도였던 천사헌금이 지금은 매년 2천만원을 넘을 만큼 많은 성도들의 관심 속에 진행되고 있고, 매년 지역 내 작은 교회들을 섬기고,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는 교회를 보며 성도들이 자부심을 느끼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2009년 12월 31일 송구영신예배에 부임하여, 2015년 11월 둘째 주까지 사역하며 고척교회에서 경험한 많은 것들이 저의 목회 곳곳에 스며들어 건강한 목회를 해나갈 수 있었고, 덕분에 교회도 해마다 꾸준히 성장해가고 있습니다.

비록 같은 공간에 머물지는 않지만 고척교회를 통해 선사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고척동과 주변지역이 날마다 눈부신 아침을 경험하고 용인영락교회는 용인지역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만개하는 역할을 감당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손수건 같은 만남의 날들을 그리며...

최종만 목사(홍콩한인교회 담임목사)
2010년 10월 부임 ~ 2013년 10월 사임

가장 비참한 만남은 건전지와 같은 만남이다.
힘이 있을 때는 간수하고 힘이 다 닳았을 때는 던져 버리니까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다.
힘이 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니까
당신은 지금 어떤 만남을 가지고 있습니까?

- 정채봉 詩, "만남" 중에서 -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도 잊히지 않는 온기가 남아 있습니다. 고척교회는 저와 저희 가정에 그런 공동체입니다. 2010년 가을 저의 '고척살이'가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곳에서 3년간 '손수건' 같은 분들을 켜켜이 만났습니다. 짧은 시간, 고척교회 공동체 안에서 짙은 인생의 사계절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성도님들의 축복 속에서 결혼을 했고, 다음 해에 사랑스러운 딸이 태어났습니다. 당시, 어머니의 항암 투병 중에 선물처럼 주신 딸입니다. 사랑하는 어머니의 장례를 곁에서 지켜주신 분들도 고척교회 가족들입니다. 부교역자가 힘은 되어드리지 못하고, 짐만 드리는 것 같아서, 늘 면구스러웠습니다. 그러던 중에 목사 안수를 받았고, 갇을 길 없는 사랑의 빛만 충만하게 적당한 채 2013년 10월 첫 주일에 고척살이를 정리했습니다. 돌이켜보니, 고척교회 창립59주년을 한 주 앞둔 때였습니다.



사무치도록 그림고 감사한 공동체가 이제 '교회'를 맞았습니다. 지나온 세월만큼 고척동도 많이 변했겠다 싶습니다. 교회도 새로운 위임목사님과 더불어 새 이야기를 써 내려가고 계시겠지요. 저는 믿습니다. 많은 것이 변했어도, 변함없는 주 예수님의 사랑이 교회 안팎에 흐르고 있을 것을. 병아리 전도사에게 '손수건'의 능력을 몸소 가르쳐주신 공동체답게 여전히 그런 만남을 이어가고 계실 것을.

2024년 여름 저와 제 아내 그리고 딸 미소는 '홍콩살이' 6년차입니다. 고척동에서 배운 사랑을 홍콩에서 나누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억나실 때 기도해주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기억하는 '그 교회'의 모습을 부디 백세까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힘이 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는 손수건 같은 교회, 그 교회를 70년 전 고척동에 친히 심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에게 고척교회는 '아름다운 만남'이었습니다. 고척교회의 지난 70페이지 가운데 세 페이지를 함께 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만남을 가지고 계신지요?!

그래서 저는 행복한 목사입니다!

박중목 목사 (동성교회 담임목사)
2012년 1월 부임 ~ 2019년 4월 사임

먼저 고척교회의 70번째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70년 전 고척동에 예수님의 핏값으로 고척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로, 지역을 섬기는 교회로 지금까지 이끄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제가 고척교회를 떠난 시점이 딱 65주년이 되던 해였는데, 벌써 7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세월이 이렇게 빨리 흘렀구나!' 그러면서 잠시 잊고 있었던 정든 고향과 같은 고척교회를 한번 추억해 보게 되었습니다.

고척교회는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교회입니다. 아직도 고척교회 소리만 들어도 마음이 흥분이 되고, 설레임이 있는 교회입니다. 이런 고척교회가 70주년을 맞이한다고 하니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제가 이렇게 감격스러워 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한 교회가 한 지역에서 70년이라는 오랜 시간동안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지역 주민들이 고척교회를 필요로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는 작은 교회이지만 날마다 행복한 목회, 즐거운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게 되고, 말씀을 가르치게 되고, 자주 만나서 대화를 하게 되고, 그러다보니 조금씩 조금씩 신앙에 있어서,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변화되고, 자라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한 가정 한 가정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니 그 때부터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렇게 성도들을 가까이서 자세하게 들여다 볼 수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기쁨이요, 행복인지요. 이것이 어찌면 작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제는 모든 성도들이 교회 건축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불가능하게만 여겼던 교회 건축을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는 믿음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성도들을 보면서 어찌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행복한 목사입니다.



필레꽃처럼 모든 이에게 기쁨을 주는 교회



한 신 목사 (필리핀 시불란 선교사)
2016년 12월 부임 ~ 2021년 12월 사임

몸은 먼 곳에 있지만 늘 기도로 후원해주시는 동역자님들에게 인사 올립니다. 고척교회가 벌써 70주년이라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마음이 설레었는지 모릅니다. 오랜 여정을 거쳐 고척이라는 공동체가 올해로 벌써 70년을 맞이했다니 먼저 고척을 거쳐간 목회자로서 감사한 마음이 큼니다.

저는 현재 시불란 지역에서 선교사로 활동하며 두마게티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희 선교지 앞에는 필레꽃이 예쁘게 피었다 집니다. 잊을만 하면 나타났다가 금세 사라져 버리지만 저의 인식 속에 필레꽃은 언제나 모두에게 기쁨을 주는 존재입니다.

고척교회도 필레꽃처럼 모든 이에게 기쁨을 주는 교회라는 확신이 있기에 70년 전 이 터에 세워진 고척교회가 저는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앞서 밝혔듯 현재 필리핀에서 선교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사역에 정진하고 있습니다. 시불란 지역에 교회를 5군데 개척하여 진행하다 최근 관광지 주변에 위치한 블랑바또 하우스 교회에 접근할 길이 막혀 어쩔 수 없이 교회를 4군데로 축소하였습니다.

1 캄부카드 하우스 교회

기도하는 마음으로 험한 산지를 지나다 우연히 발견하게 되어 개척한 교회입니다. 오랜 기간 침체가 지속되는 느낌이 들어 끊임없이 포기를 생각했었지만, 고척 성도님들의 기도가 쌓여서 그런지 지금은 야외 예배당이 거의 꽉 찼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많은 성도님들이 모여 튼실한 교회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2 발릴리 하우스 교회

처음 이 교회를 접할 땐 주변 지역을 정찰하다 어떤 작고 소박한 시골동네 커피숍을 들른 이후였습니다. 오랜 기간 이들에게 다가가고 늘 밥 한 끼 챙겨주려 노력했습니다. 고척교회 소년부와 전도대 사역시에 늘 했던 일이라 어렵지 않게 하던대로 이곳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3 산 안토니오 하우스 교회

현재 진행하는 선교 사역 가운데 가장 힘든 지역입니다. 2년 넘게 사역을 진행하면서 제 자리가 있다는 느낌을 거의 받아본 적이 없을 정도로 힘들게 사역을 진행했습니다. 물론 이런 영적인 공격에 더 몰려설 생각은 없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발걸음만 있을 뿐입니다.

4 시불란 예수 제자 교회

은혜가 넘치면 시험도 큰 것 같습니다. 이 교회는 계속 매주 사건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잠시 소강상태에 들어간 느낌입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멈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단계로 나아가도록 더욱 힘써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5 잇츠 신학대학교

신생 대학 잇츠 신학대학교는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공사 중입니다. 최근 잠시 멈추었던 피딩사역도 진행되었다 들었습니다. 작은 시작이지만 이러한 기도운동 혹은 피딩운동이 더욱 은혜 가운데 거룩한 세력을 확보하도록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척박했던 땅에 70년 전...

윤정환 부목사 (사랑교구)

함께 공부하던 동기들이 하나 둘씩 주님의 몸된 교회로부터 청빙을 받기 시작하고, 거의 대부분의 동기들이 각자의 교회를 섬기게 되었을 때에도 저는 임지가 정해지지 않아 계속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역지가 정해지지 않은 동기들을 한 손으로 셀 수 있게 되었을 때 즈음, 그 때 고척교회에서 학생과 교사를 더하면 약 250명의 부서를 맡으라고 하시니 제일 먼저 제 마음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어린 아이와 같은 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힘주시고 함께하시겠다 말씀 해주셔서 저는 두렵고 떨리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고척교회 전도사가 되었고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흐르고 흘러 여기까지 오게 되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고척교회 63주년에 부임하여 70주년이 되는 해 오늘까지 고척교회와 함께하시고 저와 함께하신 에베에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고척동이라는 척박했던 땅에 70년 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부흥과 성장,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언젠가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으로 가라 하실 때가 올 것이고 그 때가 고척교회 몇 주년이 될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날이 올 때까지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주의 종 되기 위해 기도하며 주님의 몸된 고척교회를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고척교회가 100주년을 맞는 해에는 제가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예배드릴 수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척교회의 100주년을 이미 약속하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신뢰하며 서로 사랑하는 고척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소망합니다.

고척리 작은동네에서 한결같은 주님의 은혜와

배순길 은퇴장로 (은퇴장로회장, 섬김3)

살롬!! 창립 제 7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 드립니다. 1950년 6.25사변으로 암울한 지경의 경기도 서남권지역 고척리에 실향민들이 들어와 어렵게 함께 살아가던 작은 동네였습니다.

1954년 10월 9일 작은 마을에 천사들에 의하여 기도처가 시작되었고 김제건, 조재호 두 분의 원로 목사를 배출한 것은 기념비적 발자취의 교회연혁으로 기록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진실로 교회 머리이시고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모든 가족에..... 고척교회의 지난 70년은 한결같은 주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며 확신합니다.

특히, 1990년 11월 4일, 『예수초청 1만명 잔치』는 잊을 수 없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 때가 고척교회 부흥의 전성기였음을 기억하고 확신합니다. 매년 8월 15일은 장로님들의 부부가 함께 수련회로 1박하며 즐거워 했던 일들, 그리고 장년부 여름수련회 등이 그리워 집니다.

올해 70주년을 대변할 창립멤버분들이 몇분이 계시는지 뵈고 싶습니다. 바라기는 후일(70주년 이후)에는 교회 주변이 더욱더 변모 할 것을 기대합니다. 교회창립 100주년을 향하여 서남권에서 대표적인 교회로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다음세대를 품으며 신뢰가 회복되고 남과 북이 통일되는 이 모든일을 계획하고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께 기도 드립니다.

끝으로 교회가 젊은 교회로 한국교회 중심에 서서 세계선교에도 힘쓰면서 1만명 이상으로 성장하는 꿈꾸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베풀고 배려하고 사랑하며

박영일 은퇴안수집사(소망 5)

“처음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 하리라”는 말씀 믿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고척교회 성도 여러분을 70년 동안 지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70년을 되돌아보면 아
브라함과 같은 김제건 원로 목사님을 보내시어 기초를 단단히 놓게 하시고 뿌리를 잘 내려 꽃
피우고 열매 맺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2대 조재호 원로목사님을 보내시어 지경을 넓히시고 장막을 크게 건축하게 하시고 이처
럼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오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미래 100년을
꿈꾸며 우리 고척교회 성도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축복을 기다리며 특별히 차동혁
위임목사님을 우리 고척교회에 보내심을 감사드리고 같이 꿈꾸며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게 하시
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차동혁 목사님을 앞장 세우셨으니 어린양
같은 저희들을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잘 인도 할
수 있도록 영육을 강건하게 지키시고 지혜를 더
하시어 좋은 꼴로 우리의 삶을 살찌우고 우리 고
척교회 성도들이 있는 곳 가는 곳마다 하나님 영
광이 드러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와 우리나라와 세계를 품고 기도
하며 베풀고 배려하고 사랑하며 아버지께서 “잘
했다” 칭찬받는 우리 고척교회와 품격 있는 성도
가 모두 되어지길 기도하며 70주년, 진심으로 축
하드립니다. 고척교회 성도 여러분 파이팅!!!!

신앙을 세워가는 든든한 교회



김인숙 권사(사랑16)

우리 고척교회가 70주년을 맞이하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하는 성도, 꿈꾸는 교회”
라는 표어 아래 우리는 지난 70년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성장해 온 공동체임을 기쁘고 자랑스럽
게 생각합니다.

제가 고척교회에 등록한 지 어느새 20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그 시간들 속에는 기도와 찬양, 감사
와 기쁨이 있었고, 때로는 삶이 너무 버거워 눈물로 기도하던 날도 있었지만, 주님께서 여기까지 인
도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저의 모든 것입니다. 시간, 재물, 건강 이 모든 것이 우리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앞으로
남은 삶도 부끄럽고 죄 많은 인생이지만 주님을 위해 다 드립니다. 저의 눈물과 염려, 기대와 소망,
이 모든 것 아버지 손에 올려드립니다. 마음껏 사용하시고 그 끝이 아버지의 영원한 품이면 제 인생
은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30년은 우리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형상대
로 지음을 받은 가장 연약하고 소외된 자와 함께 삶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100주년을 향한 우리 고척교회는 하나님의 공의가 강같이 흘러 어딘가에 고이지 않고 낮은 곳으로
흐르는 공동체로 사회의 필요를 채우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길 기
도합니다.

God Is God

정한희 청년(02또래)



평소 오고 가는 이동길에는 내가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를 주로 듣는 듯하다. 그러다 재생목록 중 찬양이 나오면 가만히 멈춰 서 묵상을 하거나, 몇 번이고 들으며 그 찬양 가사와 하나가 되어보기도 했다. 나의 이야기를 대입하여 들으면 걸으면서도 자주 울 수 있는 것 같다.

요즘에는 선교를 준비하며 'God Is God'이라는 제목의 찬양을 듣고 있는데 가사의 내용 중 해석한 "하나님은 하나님이며, 나는 사람일 뿐이니"라는 문장을 좋아한다. 사실 이 곡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문장이지만 그만큼 중요한 한마디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이기며, 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하는 고백도 하게 되었다.

또 지금 만나고 있는 짝궁과 함께 일주일에 한 번 나눔도 하고 있다. 작년에는 성경을 읽으며 그 말씀에 대한 나눔과 서로에 대한 칭찬 또는 감사 나눔을 했고 올해는 찬양 나눔을 하고 있는데, 좋아하는 찬양 한 곡과 그 곡에 대한 다양한 나눔들을 하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주님 안에서 건강히 만나길 원하고 서로의 믿음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서로에게 더 의미 있는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 한다. 잠깐의 시간을 투자하여 매우 큰 것들을 얻고 있는 듯하다. 그래서 앞으로의 나의 신앙은 또 어떤 성장을 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된다

숨을 쉬며 살아가는 지금

인진경 집사(기쁨11)



"성경통독 한번 해볼래?"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교회생활에 열심인 친구를 보고, 관심은 있었지만 선뜻 가겠다는 말을 하지 못하고 지내다 20대에 들어서면서 원지 모를 마음의 허전함과 인생의 방향을 고민하고 있을 때, 성경통독 참여 권유로 교회에 처음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친구의 인도를 따라 고척교회에 등록하고, 교회에서 믿음의 배우자까지 만났습니다.

쌍둥이 아이를 가졌을 때, 혹시나 아이들의 건강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나의 건강 또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노심초사 했지만, 언제나 좋으시고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아이들이 단태아만큼이나 건강한 모습으로 태어나게 해주셨습니다.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고 있는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는 놀라우신 길을 만드느,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요즘 출, 퇴근길에 자주 듣는 Way Maker(길을 만드시는 분) 찬양입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찬양을 들으면 뭔가 내 마음속에 결의가 다져진다고나 할까요? 오늘도 이렇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곁에 계시니 걱정없이 오늘 하루 무사히 잘 지내보자 스스로 다짐하게 됩니다.

믿음의 부모로 아이들에게 본보기적인 삶을 살아가고자 노력하지만, 아직도 신앙적으로 많이 미숙하다 느끼며 살아갑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길 원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이들과 함께 믿음 가운데 잘 생활하고 100주년을 기념하여 글을 써볼 수 있길 희망합니다. 숨을 쉬며 살아가는 지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창립 70주년을 축하하며

김요한 안수집사(소망63)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영광과 찬양을 올려 드립니다. 우리 고척교회가 주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 라는 말씀에 순종하며 창립 70주년을 맞이하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70여 년의 세월 동안, 믿음의 선진들로부터 이어져 온 각 사역에 대한 헌신적인 수고와 주일 예배, 새벽기도, 금요철야기도에 힘쓰시는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두 분의 훌륭한 원로 목사님들에 이어 영성이 깊은 차동혁 목사님을 부임하게 하시고, 교구와 교육부서에서 열정적으로 사역하는 부목회자 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100주년까지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 위한 저의 바람은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고척교회 성도들 모두가 예배와 말씀묵상과 기도회 힘쓰고 온 열방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어두운 세상에 빛 비추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 문화 각 분야의 사역자들이 나오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K-컬처가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통해 온 열방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기회를 통해 믿음이 굳건한 아티스트와 문화 콘텐츠 제작자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 배출되기를 기도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고척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아, 열방의 백성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선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마당 귀퉁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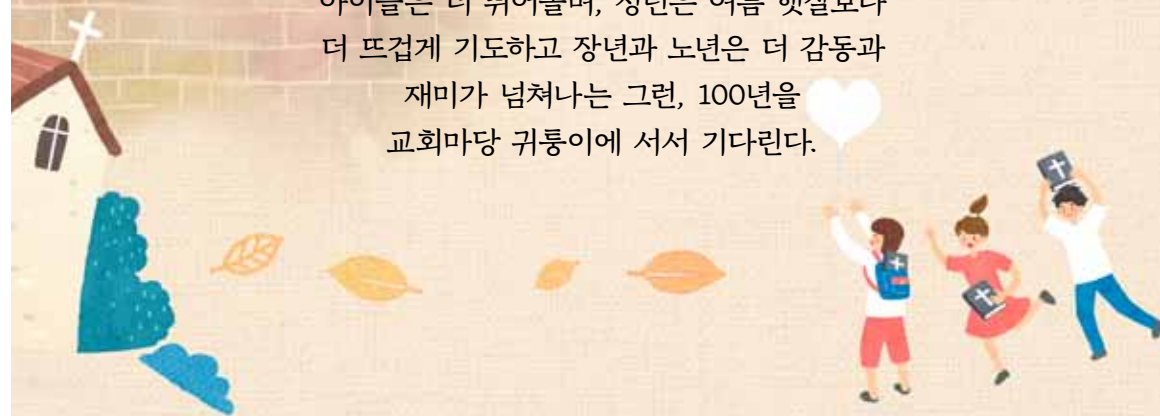
이재만 안수집사 (우물가 편집장)

옛 본당 지을 때
책가방 교회마당 귀퉁이에 던져놓고
빨간벽돌 6개 7개씩 날랐는데
어느덧 70년의 세월이 지난다

까만세상 지쳐 눈 감고 있으면
빨간벽돌 종탑 위 붉은 십자가는
하나님을 확정하는 반복의 세월 속에서
어김없이 나를 지켜준다

또 다른 새 성전에서 떡을 떼며 분잔하니
흔들리는 빨간 포도주에 비치는건
까까머리 중학생, 청년인데
오늘 보니 내 나이 환갑
교회는 교회, 70주년

아이들은 더 뛰어놀며, 청년은 여름 햇살보다
더 뜨겁게 기도하고 장년과 노년은 더 감동과
재미가 넘쳐나는 그런, 100년을
교회마당 귀퉁이에 서서 기다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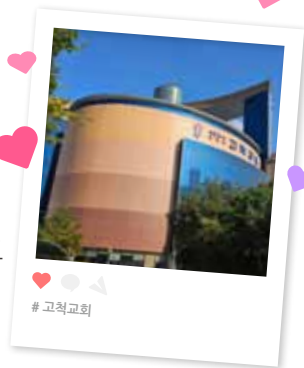




70주년, 70인 성도가 말하는 "우리교회 좋아요"

1954년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고척동에 교회를 세우시고
70년동안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고척동에서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부흥을 통한 성장된 모습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칠십명 성도님들의 짧은 느낌을 모았습니다.

교회 창립 주일을 기념하며 예배와 여러 행사를 함께 했던 일은 교회의 성장과 발전을 기
리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벤에셀 하나님께 감사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성도 70인
의 눈을 통해 미래를 위한 공동체의 기도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기반으로 하는 헌신
을 통해 꿈꾸는 100주년을 향한 기대와 다짐을 나누어 봅니다. (편집자 주)



김성철 안수집사(화평19)

고척교회는 세상이 좋아하는 권력, 재물, 세
력, 명예를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구원 복음을 전하며 바른 믿음 안에
거하는 좋은 교회입니다.

임창복 은퇴장로(은혜1)

우리 다함께 변화와 개혁을 넘어, 눈물의 기
도에 씨앗을 심고 다음세대 영적리더들을 많
이양성하여 하나님의 꿈, 비전을 세워가는 고
척성령공동체가 되어요.

서명철 은퇴안수집사(사랑28)

분열없이 교인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믿음 생
활하고, 목사님들의 말씀이 성경적이고 안정
적인 목회를 하시며, 교인들간에 원만한 유
대를 갖고 사랑으로 믿음 생활할 수 있는 모
든 것이 감사하고 축복받은 우리교회 너무
좋아요.

안송근 권사 (할렐루야 찬양대장 / 사랑7)

하나님은혜로 달려온 70주년 참으로 감사드
립니다. 삶의 위로와 행복을 함께하는 고척
교회, 말씀으로 굳게세운 이곳에서 우리의
다음세대들과 세세토록 아름다운 찬양소리
가 넘치는 교회 그런 고척교회되게 하여 주
시옵소서.

이옥희 은퇴권사(화평1)

너무도 귀한 3대 목사님들이 계심에 감사하
고, 40여년 너무 즐겁게 섬길 수 있게 해주셔
서 또한 감사하고, 앞으로도 하나님 기뻐하실
고척 교회이기에 감사 또 감사합니다.

송기진 안수집사(은혜21)

이제 다시, 우리 모두가 주님 성전의 작은 모
퉁이 되어 항상 기도하게 하셔서 거룩
한 교회, 존귀한 교회, 정결한 교회, 복음을
전하는 교회, 주의 꿈 이루는 교회, 새로운
100년을 꿈꾸는 멋진 교회로 인도하시고 축
복하소서.

박명용 안수집사(사랑8)

지난 70년간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해온 고척
교회, 교회에서 나누는 따뜻한 사랑과 나눔
의 정신이 참 좋은 교회, 지역사회를 위한 선
한 영향력을 펼치며 특히 청년들과 다음세대
에 더욱 힘써, 70년 신앙의 유산을 잘 계승하
고 시대에 맞는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강경자 권사(은혜25)

70주년을 축하합니다. 어머니의 품과 같이 언
제나 평안한 우리 고척교회, 온 가족이 함께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우리, 고척
교회 주일이 행복하고 기다려지며. 말씀이 살
아있는 우리, 고척교회 바라기는 다음세대가
이런 마음으로 세워지기를 매일 기도합니다.



김미자 은퇴권사(믿음1)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우리교회가 참 좋습니다. "천사운동"과 "푸드뱅크"를 통하여 어려운 이웃들과 구체적으로 사랑을 나누며 또 "꿈샘 문화교실"안에서 주민들과 함께 배우며 소통하는 고척교회가 정말 좋습니다.

박점숙 권사(소망11)

새 본당 성전 건축을 위해 온 성도들 함께 릴레이 기도하고^^, 아름다운 새 성전에서 기도드릴 때, 죽음에서 생명으로, 자녀들의 삶을 인도해주신 좋으신 하나님^^, 삶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

이한경 집사(기쁨17)

70주년 너무 축하합니다. 30년 넘게 고척교회를 다니며 그 안에서 믿음의 가정을 허락해주시고 성장해 나갈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느끼며 살아갑니다. 앞으로도 성도들의 웃음이 가득한, 멋진 추억들이 쌓이는 교회로 100주년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장종욱 집사(믿음19)

고척교회 천사헌금을 통해서 希望의 빛을 보았습니다. 앞으로도 고척교회가 낮은 곳, 소외된 이웃, 반딧불이 된 비전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최은자 권사(화평32)

어쩌다 고척교회를 다니게 되었는지 생각해 보면 제일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로목사님 두 분, 그리고 차동혁 위임목사님,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 순전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언제나 노력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고척교회를 인도해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김규업 장로(믿음21)

『감사하는 70년, 꿈꾸는 100년』 여기까지 인도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높여드리며,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다음세대들이 100년을 잘 이어갈 수 있기를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칭찬받는 고척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홍필 안수집사(사랑35)

고척교회가 비바람과 눈보라를 맞으면서 70년을 멋있게 오게 하심을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인자한 모습으로 발전하기를 기도합니다.

서일교 집사(기쁨11)

70주년을 축하합니다! 한국에 몇 만개 되는 교회중에 70년을 한국에서 지내온 건 정말 축하할 일입니다. 특히 교인수의 성장뿐 아니라 신앙의 성장까지 함께해온 것은 스스로 자긍심을 가질만합니다. 앞으로 100주년도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박창숙 권사(화평12)

기도와 눈물의 열정으로 지역을 지키는 70년의 적지 않은 역사를 가진 등대같은 우리교회가 자랑스럽습니다. 변화하고 발전하는 환경에 역할을 잘 감당하며 말씀의 은혜가 넘쳐 다음세대가 든든하게, 빈자리가 새 생명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해봅니다.

손금남 권사(화평30)

70년을 함께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성경의 70년 의미를 되새기며 목사님과 온 성도님들 함께 부흥과 회복을 맞이하기를 소망합니다.

박수홍 안수집사(소망남성1)

고척교회 70년을 함께하신 에베에셀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척교회 등록한지 40년 시간 속에 임하시는 주님의 은혜 감사, 감사... 다음세대를 향한 꿈을 꾸며 미래 지향적인 참 교회, 교회다운 교회로 이끌어주실 하나님께 찬양 올립니다.

조현행 안수집사(섬김17)

천사헌금으로 삶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과 사랑을 전하는 좋은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숙된 자제가 넘쳐나는 100년도 기대합니다.

윤경미 권사(은혜33)

가족 외에 교회만큼 오래기간 지속적인 만남의 관계를 가지는 곳은 많지 않은 것 같다. 교회 곳곳마다 말씀과 기도의 소모임이 풍성한 우리 교회가 너무 좋다^^ 앞으로의 30~40년도 예수안에서 이루어져갈 말씀과 기도의 새로운 모임들이 기대가 된다.

김영찬 안수집사(사랑5)

고척교회 창립 7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고척교회를 다니면서 느꼈던 좋은점은 교회에서 제공되는 여러 서포터즈 자료들이 시온의 대로로 걸어가는 믿음의 여정에서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권오연 안수집사(믿음4)

70주년의 오랜 역사를 통해 주님의 도를 부단히 전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음을 감사하며 축하드리고, 더욱 말씀을 자세히 접하고 깊이 깨닫게 되고 범사에 형통한 은혜 받는 교회로 계속 이어가길 소망합니다.

문기석 안수집사(사랑38)

고척교회는 발에 감추인 보화같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알고보면 교회 곳곳에 재능도 많고 훌륭한 성도님들이 많고, 자랑거리가 정말 많은 교회이지만, 화려하거나 드러내려는 욕심이 없이 겸손히 봉사하고 사랑을 나누며 지역사회에 선행을 실천하는 교회입니다.



차덕수 안수집사(섬김31)

고척교회와 함께한 55년의 추억은 호기심, 설레임, 짝사랑, 질투, 외로움, 소망, 사랑, 기쁨, 영광, 교만, 슬픔, 인내, 고통, 좌절, 깨달음, 내려감, 희망, 실망, 신념, 분노, 공평하게 섬기는 순종... 나에게 화해를 건네준 고척교회 나의 인생이 고스란히 담겨 쌓여가는 곳이다.

이우철 안수집사(화평3)

우리교회는 색깔이 뚜렷한 신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색깔을 이용하지 못하고 무디어 저만 가고 있습니다. 격려와 칭찬으로 하나님 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고척 100년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정진호 은퇴안수집사(화평39)

하나님의 은혜중에 세워진 교회 크고 작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전교인의 기도로 세워진 교회 70주년을 감사합니다. 우리교회는 가족 교회이고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가 대다수인 고척교회를 사랑합니다.

유승천 안수집사(교회사무장)

아름다운 성전, 주님이 주신교회는 교회, 그리고 감사하는 성도들, 지금까지 70년을 한결같이 지역사회를 섬겨온 것같이 앞으로도 이웃사회와 100년을 꿈꾸는 고척의 랜드마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강애경 집사(화평8)

"맛난 아포카도 먹을까?" 한마을아파트에 사는 지인에게 전화가 왔다. "어딘데요?" "고척교회 카페 그라티아. 넓고 좋아~" ㅎㅎ 우리 고척교회 너무 좋아요^^ 지역사회와 공감하는 고척교회 70주년 축하합니다.

김학민 집사(믿음4)

아기들이 엄마 아빠와 함께 울고, 웃고, 때때로 뛰며 예배하는 모습에 종종 마음이 포근해 집니다. 저는 이걸 우리 교회 장점으로 꼽고 싶네요. 섬김에 게으른 제 모습도 아기를 맑은 얼굴을 보면 왠지 다 용서받을 것만 같은 느낌이 드는 우리교회 너무 좋아요.

김학렬 안수집사(소망32)

창립 70주년,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드립니다. 생명의 말씀 풍성한 교회,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가 많은 교회, 기도로 열매를 맺어가는 교회, 물 댄 동산 같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토록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은선 집사(사랑14)

고척교회 창립 70주년을 맞이하게 하여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시며 성도님들이 몸의 각 지체로 말씀과 기도와 섬김을 통하여 예수님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멋진 교회입니다.

박창득 은퇴안수집사(은혜4)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고척교회 7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안으로는 사랑을 밖으로는 선교를 실천하는 가족과 같은 우리교회가 참 좋습니다. 3대 차등책임 목사님 중심으로 하나되어 시대적 사명을 뜨겁게 완수하는 은혜가 넘치는 좋은 교회 되길 기도합니다.

오경주 은퇴안수집사(은혜20)

아이가 커서도 교회에 남기 좋고, 봉사할 기회도 많아 좋은 교회, 요즘 청년들 예식장 1년 전에 예약 할 정도로 어려운데 교회에서 예식을 올릴 수 있게 밝은조명과 화이트톤 인테리어 신부대기실도 화사하게 생화 장식으로 채워 아름다움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장춘기 은퇴안수집사(섬김13)

우리 고척교회는 주의종 목사님의 말씀이 너무 좋으며 주의앙 성도님들이 말씀따라 순종하며 믿음을 지켜나가는 교회이며 70년 동안 아름답게 성장하여 왔으며 앞으로 100년을 내다보며 미래를 굳건하게 기도로 이어가는 교회임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성창연 권사(사랑15)

70년의 역사속에 나의 어린 시절부터 청년 시절까지 그리고 고척교회에서 만난 배우자와 함께 중년에 이르기까지 내 삶이 고척교회입니다. 참으로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섬기고 형제들도 섬기며 자녀들까지도 함께 섬기는 고척교회가 좋습니다.

전수경 집사(소망61)

고척교회를 통해 자라나게 하시고 이끌어주심에 감사하고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또 기대합니다 ♡

홍혜영 집사(소망38)

주여! 지금까지 주님의 섭리안에 거하게 하시는 고척교회 70주년, 앞으로도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문기성 안수집사(믿음남성)

항상 겸손한 자세로 바른 신앙의 길로 인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순수한 신앙의 열정으로 헌신하시는 부교역자님들, 그리고 서로의 허물을 보지 않고 언제나 격려와 사랑을 나누어 주시는 교우님들이 계시기에 아름답고 좋은 교회인 것 같습니다.

박명희 집사(은혜11)

창립 70주년! 25,550날 지나온 모든 날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기쁨이었을 고척교회! 앞으로의 한 걸음 한 걸음 또한 예수님과의 동행으로 대를 이어 믿음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고척교회가 되길 기도하고 꿈꾸고 노래합니다.



고원호 장로(은혜7)

20년 전에 등록하면서 이렇게 큰 교회에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섰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교인들과 교제하며 시간이 흐르고 어느새 그 속에 같이 어울리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세대에 원활한 교제의 장이 펼쳐지는 고척교회가 되기를 그려본다.

서원성 집사(믿음5)

교회 창립70년 축하드립니다. 70년동안 키우고 가꾸었으니 이제는 나누며 베푸는 모범된 교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안익선 집사(사랑34)

고척교회 70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집 떠나면 고생이라는 말처럼 고척교회 떠나면 영적 고생을 합니다. 항상 나의 등 뒤에서 따뜻한 집처럼 묵묵히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따뜻하고 든든한 곳으로 함께 나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석호 은퇴안수집사(사랑1)

70주년을 축하합니다. 앞으로 70년도 말씀 위에 굳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 넘치는 우리교회가 되길 기도합니다.

고혜은 집사(기쁨25)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좋은 목사님을 또 다시 보내주심에 감사하며 불안감 없이 안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세상의 좋은 풍조를 쫓아 변하는 교회가 아닌 다소 올드한 것 같더라도 하나님의 스타일로 변화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주온 집사(기쁨12)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섬기고, 세계 선교와 전도에 앞장설 수 있도록 70년간 인도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말씀이 은혜로운 교회, 찬양의 열기가 뜨거운 교회, 예배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고척교회 되게 하소서!

이상철 집사(기쁨14)

우리교회는 삼대, 사대가 함께 예배드리는 한번 맛보면 끝이 힘든 교회 가정의 행복이 넘치게 하는 따뜻한 교회입니다

김선아 집사(믿음11)

혼자만의 믿음으로 살던 저를 공동체 안에서 함께 생활하며 믿음의 부리를 내릴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교회 우리 고척교회가 참 좋습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끌어가는 우리 고척교회를 사랑합니다♡

김동식 집사(섬김35)

70주년을 축하하며, 우리 주 예수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통하여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 갈 수 있는 고척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김성태 안수집사(은혜6)

다음세대가 있고, 이 세대를 위해서 부서를 초월해서 남모르게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헌신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좋습니다.

김해운 집사(믿음11)

고척 교회는 사랑의 교회입니다.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고 사랑으로 성도를 섬기고 사랑으로 아픔을 감싸는 사랑의 교회입니다. 앞으로도 100년 200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그 사랑 변치 않고 사랑이 넘쳐나는 고척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고척교회 ♡♡♡

장항영 집사(은혜 27)

신앙 선배님들의 기도와 헌신이 스며있는 70주년, 교회 안의 어려운 성도들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어렵고 소외된 이웃을 돌보고 푸드뱅크로 관심과 사랑을 실천하는 고척교회가 너무 좋습니다... 100주년을 향해 온 성도가 한발 한발, 손잡고 함께 걸어갈 소망합니다!!

이신영 집사(섬김23)

70주년 축하합니다. 삶을 살아가기도 어려웠던 시절, 우리의 삶은 천막교회가 세워진 그 때보다 윤택해졌지만 더 위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교회하면 구닥다리로 느끼는데, 조금 더 힘하고 매력있는 고척교회가 되기를 바라며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고척교회 사랑합니다♡

박명수 집사(믿음29)

우리교회, 고척교회... 고척동으로 이사 온 이웃이 "어느교회 다니세요?" 물으면 "우체국 앞 고척교회요" 하죠. 아이들 놀이 마당이 안전하고 늘 변치않는 하나님 말씀이 포도송이처럼 알차게 열려있고 말씀듣고 싶은 예배가 준비된 교회죠.....

이철현 집사(기쁨1)

영혼의 안식처가 되어준 교회,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신 되시는 교회, 안으로사랑을 나누고 밖으로는 선교를 실천하는 굳건한 교회, 이웃을 섬기고 상처받은 이들을 위로하고 치유하는 좋은 교회에서 신앙의 부리를 내릴 수 있어 감사합니다.

변숙영 집사(은혜10)

70년 맞이하는 순간을 기쁨으로 누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리고 믿음의 선배님들에 수고와 헌신으로 지금까지 지켜주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100년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여정 가운데에서도 더욱 성장하길 소망합니다~^^



박은숙 집사(소망26)

우리 고척교회는 말씀이 살아있어요. 금요집회에 찬양이 살아있어요. 기도하는 성도가 많아요.
예배의 치유와 회복이 있어요!

임동선 집사(화평13)

할렐루야~ 그가 우리를 향해 걸으시네~ 이 지역 이나라와 동역하는 공동체, 고척교회!! 70주년을 지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끝까지 동역하는 고척교회 공동체! 우리모두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모두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공영수 집사(사랑24)

고척교회 70주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름다운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끊임이 없으며, 응답을 통해서 감사가 넘치는 가고 싶은 교회 행복한 교회가 되도록 함께하신 모든 교역자 및 성도님들께 감사합니다.

유환영 집사(사랑13)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잊지않게 해주고 건강한 신앙과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신앙의 유산으로 계승할 수 있도록 해준 고척교회 이 모든 축복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70주년을 축하합니다 !! 할렐루야

김영남 안수집사(소망남성)

주님의 피 값으로 고척동에 세우신 우리 고척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교회로 슬픈 자를 위로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교회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 고척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김은정 집사(은혜29)

찬양할 때마다 새로운 힘이 샘솟게 하고 전파되는 말씀을 통해 일상에서 위로를 얻게하는 살아 숨쉬는 교회, 존중과 배려가 넘쳐나며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해 주는 교회 이런 고척교회의 꿈꾸는 100년을 기대합니다.

정규철 안수집사(믿음2)

고척교회 70주년을 축하합니다 우리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사랑이 넘치며 찬양으로 하나되어 서로를 배려하는 기쁨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이재경 집사(화평29)

70주년 축하하고 우리교회는 인정도 많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와닿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누구나 오셔서 큰 은혜받고 갈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고척교회입니다

이은경 권사(사랑39)

우리 고척교회는 고향 모교회 같은 따뜻함이 느껴집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주님 댁은 교회 만나게 하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리며 앞으로 100주년을 바라보며, 더 아름답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자라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장명숙 권사(믿음21)

금요성령예배에 빈자리가 많았었고 늘 많은 성도님이 나오셔서 예배드리기를 소망했는데 차동혁 목사님께서 부임 후 금요성령예배 인도하시고 성도님들이 많이 모여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백옥자 권사(은혜10)

고척교회 70주년 감사합니다~^^ 우리교회는 서로 사랑안에서 믿음의 동역을 하며 예수님의 사랑 나누는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70주년 축하합니다

윤정숙 권사(기쁨1)

한결같이 우리 이웃의 등대가 되어준 고척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어 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된 신앙공동체를 70년을 넘어 백년을 향해 아름답게 이루어 갈 수 있기를 기도하며 소망합니다.

임덕범 집사(섬김13)

그저 모든 것이 고맙고 감사한 고척교회!!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한가요!! 앞으로의 100년 주님을 바라보며 사랑으로 희망차게 달려갔으면 합니다. 또한 모든 분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소망하며 감사드립니다!!

이영주 집사(은혜19)

나에게는 놀이터이자 공부방이고 예배당이던 우리교회! 교회 갈 때마다 즐겁고 행복한 기억이 가득했어요. 벌써 70주년이라니 너무 축하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과 만나고 서로 교제할 수 있는, 지금보다 더 멋진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70주년을 아카이빙 한 사람, 사람들

문기성 안수집사(임음 남성)

저희 사진 전시회팀은 지난 5월 첫째 주일에 처음 모임을 가졌습니다. 교회 역사를 아시는 장로님 몇 분, 그리고 교회 사진을 잘 아시는 권사님, 집사님 등 총 9분이 모였습니다. 그로부터 10월6일 창립기념주일에 오픈하기까지 5개월간 좌충우돌하였지만, 많은 분들이 도움의 손길을 주셔서 비교적 순조로이 전시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6월에 사진 전시회 개최를 광고하여 교우들로부터 개인이 보관하고 있는 사진을 모았습니다.

종이 사진은 카메라로 찍어 디지털화하였고, 이렇게 모여진 총 500여장의 디지털 사진에 설명을 붙이고 테두리를 입히는 포토샵 작업을 하였습니다. 사진 500장을 정렬하여 판넬에 붙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픈 2주전 토요일에 전체 사진을 전시 판넬 크기로 자른 종이위에 전시할 형태로 가배치하는 작업을 하였고 이후, 실제 전시 판넬에 모두 옮겨 붙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진을 관람하고 엽서에 감동적인 또는 재미있는 글을 적어 매달아 주시는 것을 보며 같이 참여한 저로서 부딪힘을 느낍니다. 부족한 저희가 순조로이 사진전을 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나온 70년을 돌아보며 앞으로 일하실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역사를 기대합니다.



<함께 하신 분들>

- 사진취합, 선별 : 우윤하 장로, 김규업 장로, 정문훈 장로, 최성환 장로, 임길환 은퇴안수집사
- 사진 디지털화(촬영), 사진 및 문구 포토샵 작업, 사진 전시 기획 : 이은경 권사
- 전시 공간 CAD설계, 전시 공간 기획 : 정상원 장로
- 알루미늄 가벽 제작, 시공 : 최병숙 집사, 강대정 집사, 이기재 집사
- 창립 70주년 기념 사진전시회 인사말 : 김명식 장로
- 사진 사이사이 문구 : 문학 작가 김학민 집사
- 붓 글씨 성경 구절 제작 : 김완기 안수집사
- 사진으로 모자이크 이미지 제작 : 박문규 집사
- 사진 배치, 부착 : 이은경 권사, 변숙영 집사, 이자영 권사, 박혜옥 권사, 김인순 권사, 심재용 집사, 김혜진 집사, 전영숙 집사, 박문규 집사, 김규업 장로, 임길환 은퇴안수집사, 이민우 목사
- 전시회 광고 키오스크 및 사진 슬라이딩용 iMac 설치 지원 : 방송실 전범준 집사, 전대로 간사
- 총무 및 회계 : 문기성 안수집사
- 팀장 : 임길환 은퇴안수집사
- 전체 총괄 : 최성환 장로
- 담당 교역자 : 이민우 목사



교회를 선택할 때
먼저 살펴보는 것이 목사님의
설교나 주보 혹은 교회보 정도일 것이다.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살펴보는 데
이것만큼 좋은 게 없다. 그 중 주보나 교회보 같은 간행물은
그 교회의 얼굴이요 이미지다. 또한 그 교회의 문화를 대표하는
소통의 매개이면서 한 장의 주보,
한 권의 교회보가 교회문화의 방향을 바꾸기도 한다.

그러나 편집위원들이 열심히 원고를 청탁하고
늦은밤까지 원고정리와 수 차례교정을 해가며 만들지만
성도들의 관심은 점점 줄어들어 아쉽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보
“우물가”를 발행하고 모든 편집위원이 배포하는 주일이면
이 또한 축복이요 큰 은혜이다.

1979년 초판 발행 이후 교회창립 ‘70주년까지
가장 오랫동안 편집부에서 활동했던
전(前) 우물가 편집장을 통하여
그 오랜 발자취를 돌아보았다.



인쇄에 들어가는 마지막 날 새벽에 만화 원고를 넘겨주면

정상원 장로(시설부장)

교회의 공식적인 홍보 인쇄물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1979년 2월 당회 의결을 거쳐 1979년 4월15일 창간호를 발행하였으며 제직회를 통해 “고척교회보”로 정하여졌습니다. 이후 1985년까지는 연 1회~ 4회 발행되었고 86년부터는 격월로 90년부터 96년까지는 월간으로 발행하다가 97년 1월호부터 제호를 『우물가로』 변경하였고 지면을 늘려 격월로 발행하다가 이후 계간으로 발행하며 현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회보는 매년 편집기자를 모집하였는데 나는 1981년 3기 편집기자로 참여하여 20여년간 편집부에 몸담아 왔고 편집위원은 매주 비전센터 3층의 편집실에 모여 편집회의를 가졌습니다.

기사를 쓰는 일과 4컷 만화를 그리기도 하였는데 인물 그리는 재능이 없었기에 늘 민망한 마음이었는데 회보를 인쇄해주던 인쇄소에서 경찰신문 4컷 만화를 연재해 주면 좋겠다는 부탁을 받는 황당한 일도 있었습니다.





본당앞



1988연수(철원)

20여년 편집부에 몸담으며 편집위원으로 함께 활동했던 사람이 100명 가까이 되었고 모든 사람이 그림고 각각의 사연이 있지만 몇 사람을 언급해 본다면 전문성과 체계적인 조직력으로 교회보를 탄생시키고 문학동아리를 만들어 자질있는 편집기자 양성에까지 힘쓰고 매년 편집부 연수를 시행하여 교육과 단합을 이루게 하셨던 김명식 은퇴장로님과 매년 송구영신 예배를 마치면 1박2일로 편집부 연수를 떠났고 신년 새로이 부임하는 교역자도 동행하였는데 안동 하회마을로 간 연수에 양복을 입은 채로 흠바닥을 좌우로 구르는 극기훈련에 기꺼이 동참해 주셨던 이남기 목사님 그림 신동으로 유년시절부터 매스컴을 탔다던 솜씨로 심혈을 기울여 표지를 디자인해 주었던 이광호 집사님 인쇄에 들어가는 마지막 날 새벽에 만화 원고를 넘겨주면 출근길에 받아 압구정에서 직장 일을 마치고 을지로 인쇄소로 전해 주던 고마운 이정미 권사(나는 지금도 그녀의 내조를 받고 있구요) 고등부 문학동아리를 거쳐 훈련된 역량으로 동기들과 함께 편집실의 자질을 높여 주었던 송광호 장로님 대장금의 솜씨로 먹는 기쁨을 선물해주셨던 임영혜 집사님 50대의 나이에도 소녀의 감성으로 감동적인 글을 써 주셨던 송해선 권사님 1990년부터 30년간 편집실을 지키며 중추적 역할을 담당했던 문혜영 자매 등등이며 기회가 된다면 역대 편집위원 홈커밍데이를 가져보고 싶은 간절한 마음입니다.

모든 것 다 되는 핸드폰과 SNS의 일상화에 활자 인쇄물이 소외받기 쉬운 어려운 여건 중에도 예쁜 교회보를 만들어 주시는 현 편집위원에 감사한 마음 전하며 편집위원으로 자원하는 자가 더 많아지고 활기찬 분위기 속 행복한 우물가 발간이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2004년 연수(제천)



교회마당



안동하회마을 1989년



충주 1990년



2008연수 강릉



편집실이전 집들이 (1)

새 싹부

에벤에셀 하나님과 함께 쑥쑥 자라가요!

장은주 목사(새싹부)



2024년에 새롭게 태어난 새싹부는 0세부터 7세까지의 어린이가 함께 예배하며 신앙 교육을 받는 영유아유치 통합부서입니다. 새싹부 커리큘럼은 통합예배와 공동체활동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동시에 연령별 발달단계에 맞춘 소그룹 양육 또한 병행하면서 공동체성과 개별성의 균형을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막 영유아유치 통합부서라는 첫 걸음을 걷고 있는 새싹부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많은 기도와 관심, 따뜻한 격려가 필요합니다. 사랑스런 아이들과 가정, 헌신된 교사와 사역자, 이 모든 구성원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며 하나님을 더욱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에벤에셀 하나님과 함께 날마다 성장하는 새싹부가 되길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영아부

감사하는 아이와 부모, 꿈꾸는 영아부!

장은주 목사(영아부)

2024년 고척영아부는 에벤에셀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의 꿈을 꾸는 영아와 부모가 되길 바라는 주제를 가지고 신앙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에는 에벤에셀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여러 가지 속성에 대하여 매주 한 가지씩 배웠습니다.



사순절, 부활절, 성령강림절 등 교회력에 따른 교육 활동을 통해서도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도 배우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디서나 늘 함께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영아부에서는 아이와 부모가 함께 예배하면서 영적인 교감을 나누고, 체계적인 커리큘럼과 다감각적인 활동을 통해 말씀을 배우며, 헌신적인 교사들과의 소그룹 만남을 통해 신앙성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만나는 신앙공동체인 영아부 안에서 아이뿐만 아니라 부모가 함께 신앙성장을 이뤄가며, 에벤에셀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은혜를 가득 누리게 되길 소망합니다.



유아부

“별별 친구들은 누구라구요?” “9191(구원구원) 하나님의 라파키즈!”

김정화 전도사(유아부)

호에 맞는 통일된 메시지를 전하며, 체험을 통해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예수님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였습니다. 그 결과 별별 친구들, 부모님, 교사들 모두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어서 모두가 참 기뻐했습니다.

“별별 친구들아, 너희는 하나님의 라파키즈란다!
항상 앓지 말고 살아가길 기도할게!”



올해 여름성경학교를 통해 ‘여호와 라파! 고치시는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를 고치시고 위로하시는 예수님의 치유의 은혜를 세상으로 흘려보낼 수 있도록 주제 말씀과 연계된 다양한 체험활동을 경험하게 했습니다.

특별히 지난 여름성경학교의 체험활동별로 담당 선생님들께 대본을 써 주었습니다. 형식적인 활동이 아니라 주제 말씀과 주제 구



유치부

9191(구원구원) 하나님의 라파키즈 유치부! 2024년 고척교회 유치부 여름성경학교!!

김바람 목사(유치부)



♪ 나는 구원~ 구원~ 구원받은 하나님의 라파키즈! 온 세상을 구원하셨네~♪

올 여름 고척교회 유치부는 뜨거운 여름만큼이나 뜨거운 여름성경학교의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9191(구원구원), 하나님의 라파키즈!”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아픈 친구를 고치시고, 무엇보다도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만나며 아픈 사람을 고치시고 구원하신 분 라파 예수님을 나의 예수님으로 고백했습니다.

땀 흘리며 뛰며 몸으로 활동하는 놀이 시간은 성경학교를 즐거운 추억으로 남기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영아부 선생님들이 섬겨주신 그림자극을 통해 우리가 배운 라파 예수님을 만나고 퀴즈로 되새김하는 해피한 시간을 보냈지요.

성경학교는 끝났고, 지난 여름의 열기도 사라졌지만, 우리 마음에 새겨진 라파키즈의 열기는 더하여지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세상을 섬기신 것처럼 우리 유치부 어린이들도 이웃과 세상을 섬기는 라파키즈로 자라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제자!

임예녹 전도사(유년부)



이번 유년부 성경학교는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제자!'라는 주제로 아동부 연합 캠프에 참여하였습니다. 캠프 준비 과정부터 마무리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했음을 고백하며, 이번 성경학교를 통해 느낀 감사함을 나누고 싶습니다.

가장 감사했던 순간은 아이들이 목청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쁘게 뛰며 예배하며, 두 손 들고 기도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순간들에서 느껴진 은혜와 감동이 아직도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이번 캠프를 통해 많은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하는 데 큰 밑거름이 되었기를 소망하며, 마지막으로 유년부 성경학교를 위해 많은 관심과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머리숙여 깊은 감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소년부

사역에서만 맛볼 수 있는 기쁨

강이삭 전도사(소년부)

지난여름 저희 소년부는 주알리기 캠프팀과 함께 유년부와 타 교회 8개 곳과 같이 여름성경학교를 진행했습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주알리기 캠프팀과 같이 여름성경학교를 보내게 되었는데, 작년보다 다채롭고 은혜로운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유소년부와 캠프팀은 더 많은 준비와 노력을 했습니다.

캠프 동안 가장 인상 깊었던 한 장면을 꼽자면, 많은 수의 학생들이 예배 시간 찬양을 부를 때, 각자의 자리에서 스스로 일어나 정말 즐겁고 행복하게 찬양을 부르고 율동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순간, 저와 선생님들은 다시한번 하나님의 사역에서만 맛볼 수 있는 기쁨과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올해 연말까지 이 아이들의 모습들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는 소망을 품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늘 지금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를 계속 부탁드립니다.



중 등 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에린 전도사(중등부)

2024년 고척 중등부는 “성령에 너희에게 임하시면!”이라는 주제로 7월 24일부터 7월 26일까지 한국공학대학교에서 수련회를 진행했습니다. 주제 성구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남으로 성령님의 권능을 힘입어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으로 부름을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수련회는 중등부에게 도전의 시간으로, 처음으로 많은 교회가 연합해 진행되는 캠프 코리아의 연합수련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신앙코스’ 프로그램을 통해 나의 신앙의 모습을 점검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캠코 방탈출’에서는 다양한 게임을 통해 공동체가 더욱 하나가 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다니엘김 선교사님의 말씀으로 깊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며,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도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가장 기쁜 소식인 복음에 가치를 두고 달려가는 중등부 친구들이기를,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으로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기를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고 등 부

하나님으로 인한 삶으로

박동운 목사(고등부)



2024년 고척 고등부는 'TODAY'라는 주제로 서울장신대학교에서 진행된 한 밀캠프에 참석했습니다. 처음으로 참석하는 캠프여서 설렘과 걱정이 섞인 마음이었지만, 모든 걱정이 기우였음을 알게 된 잊지 못할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고등부 친구들이 누구보다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배를 사모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두 손을 들고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 박수와 춤을 추며 신나게 찬양하는 모습, 졸음이 몰려와도 끝까지 참고 말씀을 들으려는 모습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하루하루를 오직 하나님으로 인한 삶으로 살아가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는 삶으로 살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이 글 읽으시는 성도님들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순간들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청년부 활동

1

07월 01일 ~ 07월 12일 - 2024년 해외 성지순례 [진달레]
09월 13일 ~ 09월 21일 - 2024년 해외 단기선교 [캄파뉴]

청년공동체에서는 매년 선교의 여정을 달려간다. 특히 올해는 성지순례를 처음 진행한 해여서 더욱 특별하다. 성지순례를 통해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는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을 지키며 살아간 믿음의 조상들의 신앙의 여정을 조금이나마 들여다볼 수 있는 아주 귀한 시간이었다.

그리고 추석 연휴를 선교로 물들이려고 하는 또 하나의 팀이 있다. 9월에 캄보디아로 떠나는 [캄파뉴]팀이다. 신윤숙 선교사님께서 사역하시는 곳으로 가서 위로를 전하고 현재 진행하고 계신 사역들을 돕는다. 이동도서관 사역, 영어수업 사역 등 다양한 모습으로 함께 하고자 한다.

[진달레]와 [캄파뉴], 두 팀의 모습을 통해 주님의 복음이 더욱 드러나며,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모든팀들이 되기를 바란다.

또한 이들을 위해 기도로, 물질로, 그밖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함께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망한다.



2

07월 25일 ~ 07월 27일 - 2024년 청년공동체 여름수련회

오직 청년의 때에만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있다. 그 중 하나를 뽑으려면 단연 청년공동체 여름수련회가 아닐까.

청년공동체 [나를 따르라:CALLING]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주제말씀은 마가복음 2장 13~17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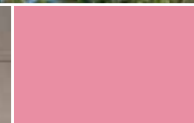
2박 3일로 단양 청소년수련원에서 진행된 이번 여름수련회 역시 이전과 마찬가지로 많은 청년들이 참여하여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하는 기쁨의 시간이었다.

특별히 이번에는 차동혁 위임목사님께서 집회 때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시고, 청년들 모두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은혜가 넘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청년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서로에게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 주며, 세상 가운데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을 알기에 서로의 존재가 더욱 소중하다는 것을 느끼는 아름다운 2박 3일이었다.

내년 여름수련회도 여전히 기대하며, 올해 수련회 때 경험한 하나님을 잘 기억하며 살아가는 2024년이 되기를 소망한다.







작가 : 염창이

작품명 : 내 마음 속의 속삭임

우리들의 일상을 다시 생각해보는 풍경과 꽃들을
 낭만적인 선과 색채로 따뜻하고 화사한 색감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자연이 주는 색감과 아름다움은 경이롭기 때문입니다.
 화폭에 담은 사람은 우리가 평범하게 볼 수 있는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움직임으로 생명력을 가지고 평화롭지만
 활발한 풍경을 담고 있으며 특히 화면 속에 자전거를 타고 가는
 여인을 상징적으로 그렸습니다.
 희망을 꿈꾸듯, 하고 싶은 것을 힘차게 마음껏 펼치고 있다는
 행복감에 잠긴 여성의 모습!
 마치 그녀만의 행복한 선율을 꿈꾸며 동경의 세계,
 상상의 세계를 펼치는 은유적인 표현이 깃들어 있습니다.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미술의 감성적인 예술과 문화를 즐기며 마음의
 휴식으로 일상의 소소한 아름다움으로 행복하기를 기도합니다.





작가 : 이세영

작품명 : 정물

작품사이즈 : 90.9 * 62.1 30P

작품재료 : oil on canvas

작품에 내혼을 넣고 쉼기를 주고 탄생하기까지 결코 쉽지 않은 작업 과정이지만 늘 캔버스에 정신을 잃고도 암을 에너지를 쏟는 그 시간 만큼은 카타르시스를 느낀다. 이번 유럽풍의 작품 정물 또한 혼을 가해 그린 그림이다 몇 해 전 동유럽을 여행하면서 좋았던 기억들을 상기하며 프라하 이름모를 골목화원에 흐트러지고 정형화 되지 않은 꽃들을 보며 나만의 캔버스에 구상하며 그려 보았다. 종종 회구를 챙겨 가능한 더 먼 곳으로 가서 내 작품세계를 넓혀 볼 생각이다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미술의 감성적인 예술과 문화를 즐기며 마음의 휴식으로 일상의 소소한 아름다움으로 행복하기를 기도합니다.



memo.



감사하는 성도, 꿈꾸는 교회 삼상 7:12



— 70주년기념 전교인 찬양축제 중에서 —



[사진출처:이은경 권사]

우물가 2024 Winter Vol.241

1979년 4월 15일 창간 | 계간
제43권 제1호 통권 241호
2024년 12월 20일 발행
고척교회 역사홍보팀
<http://new.gocheok.or.kr>



발행인 | 차동혁 지도 | 김재광 팀장 | 이재만
편집위원 | 김숙희·이철현·김영남·이은경·이윤아·변숙영
고척교회 | 서울시 구로구 중앙로 79 | Tel. 02.2686.5871~3 Fax. 02.2684.7677

마음을 전하세요!!

고척교회 '우물가'와 함께 사랑하는 분들에게
마음을 전해 보세요.

To. _____

From. _____

